

# “불교시민운동 널리 퍼져”

경북 8월 기념 토론회서 주창

## “경제윤리 등 새 패러다임 필요”

“경제윤리 등 사회 전반에 새로운 윤리관을 제시하고 기운을 불어넣기 위해 불교의 가르침을 일반적 윤리로 정착하고, 이를 확산시키는 불교시민운동이 시급하다.”

11월 22일 서울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경불련, 운영위원장 김동은) 창립 8주년을 맞아 열린 ‘경북 8월 기념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불교시민운동의 활성화를 불교의 당면과제로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등 일반 시민단체 실무자들은 불교시민운동이 풍부한 이념과 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활동은 구호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하고 불교인의 시민운동 참여를 당부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손혁재씨는 “개인신행

차원의 보시를 시민운동 차원으로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승창 경실련 운영위원장은 “보살공덕제, 생태주의 등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은 불교 시민운동단체의 임무”라고 말했다.

전재성(한국바알리성전협회 회장)씨는 “불교도의 공동체는 현대 사회에 모범을 보여주는 시민사회적 공동체였다”며 불교시민운동의 경전적 근거를 제시하고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의 대안으로서 불교사상의 정립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박경준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해탈의 종교인 불교는 사회적인 괴로움의 해소에도 적절한 가르침을 담고 있다”며 불교시민운동에 대한 불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 불련 8년 평가와 불교시민운동의 전망



11월 22일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불교시민운동의 전망’ 토론회.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불교시민대학 개설, 회원 및 자원봉사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이 불교시민운동의 과제로 제기됐다.

한편 조대업(고려대 강사)씨는 최근 창간된 <불교평론>에 “시민정치의 확대와 불교시민운동의 전망”이란 글을 통해 “현재의 시민운동

이 겪고 있는 △시민없는 시민운동의 문제 △시민운동의 이념적 지향의 부재 등을 불교시민운동이 해소할 수 있다”며 “불교 이념의 구현을 위해 불교의 사회제도와 혹은 조직화는 더욱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13명 송광사사 10일동안의 인거에 들어갔다.

## 申스님 한국선 배운다

13명 송광사사 열흘간 화두선 수행

한국불교의 전통선수행을 체험하기 위한 중국 스님 13명이 11월 22일 송광사 사자루에서 결례에 들어갔다. 중국 스님들은 이날부터 10일 동안 송광사에서 송광스님(송광사 승가대학 학장) 등으로부터 화두선을 지도받는다.

중국불교는 공안화 이후 스님들의 숫자가 대폭 줄었고, 수행의 전통이 끊겼다. 이번에 온 스님들도 주요 사찰의 주지이나 대부분 30~40대 초반의 스님들이다.

정성운 기자

## 강진불교대학 개교

강진 백련사(주지 혜일)는 11월 14일 정업(강진사암련회장) 보안(다성사주지) 성각(보리암주지) 스님과 김병완 강진불교신도회장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불교대학 개교기념식 1기 신입생 120명의 입학식을 개최했다.

1년과정의 강진불교대학은 불교학 불교사 불교문화사 등의 강의를 개설하고 있으며, 졸업후 포교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주용직 광주주지사장

## 사천 모충사 무료양로원 개원

독거노인 등 50명 수용

경남 사천 모충사(주지 백산)는 30일 절에서 수행하며 노후를 지낼 수 있는 무료양로원 삼소원을 개원했다.

지하층 지상층 총 건평 3백평인 삼소원(원장 임해정)은 13개 방사와 세면실 공양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삼소원은 현재 20여명의 노인이 입주한 상태로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주지 백산스님은 “20여년간 발

원해은 복지봉사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후원해준 불자들의 정성을 생각하여 노인분들을 편안하게 모시겠다”며 “독거노인 등 불자들이 삼소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고 밝혔다. 후원 및 입소상담은 0593) 835-9100. 모충사는 이날 이은관(인간문화재 19호)씨와 노영희씨(KBS국악명창 대상)를 초청하여 지역노인잔치를 개최했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 부산 14개 복지관 연합수련

예절·직업의식 등 특강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박남철)는 11월 20~21일 합치골 수련원에서 복지관 직원 연합수련회를 개최했다.

올 7월에 결성된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가 처음으로 가진 연합 행사인 이번 수련회에는 개교사 사회복지관, 낙동사회복지관, 물운대 사회복지관, 늘기쁨마을 등 14개 기관의 관장 및 직원 1백30여명이 동참했다. 기관별 직원 상견례, 각 법인 대표인사로 친목을 도모하고 직업에 대한 프로의식에 관한 특강과 서비스 매너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이 연수회는 불교계가 운영 하는 복지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복지개념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박남철 회장은 “실무영역은 다양하지만 복지관 직원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예절과 서비스 정신에 대한 교육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게 하고 싶었다”고 행사의 목적을 밝혔다.

천미희 기자

## “참나가 부처임을 알자”

철웅스님 부산대불련 법회

대불련 부산동회(회장 최상문)는 25일 통도사부산포교원 법당에서 부산지부 창립35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무한성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 임영건 부산불교거사회 회장을 비롯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철웅스님은 법어를 통해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자기의 실상이 부처라고 자각하는 것으로 자타일체감이 저절로 파악되면 자비와 사랑이 자연적으로 구현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수행하는 데도 명당이란 것이 있을까? 국민 (冥府殿)이 바로 그곳. 이 명부전은 조계종 제5대 종정 서옹스님과 조계종 종정을 3인이나 배출한 길지가 있다. 문경시 산북면 김룡리 운달산 김룡사 명부전 스님이 절치택마한 유서깊은 곳이다.

## 확철대로 길지 ‘불교 명당’

20세기 불교 그 현장 그 인물 (8)

### 종정 3인 배출 김룡사 명부전

이 명부전은 1714년(숙종40년) 불교와 인연이 깊은 숙종임금이 임진왜란때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과 역대 왕권다툼의 과정에서 죽어간 혼령들을 천도하고자 발원해 거국적으로 펼친 불사의 일환으로 건립됐다.

따라서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이 주불로 모셔져 있으며 좌우 협시보살과 동자승, 사천왕과 10대 천왕 등 모두 18위의 불 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다.

김룡사 명부전은 서장대(西藏臺)라고도 하며 대웅전을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동전(東殿)이라고도 불리는데 본 절에서는 잘보이지 않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약 20평 남짓한 명부전 바로

옆에는 황토흙으로 지은 10평짜리 조그만 토굴이 있어 요사채로 사용돼 왔다. 그 뒤로는 소나무가 병풍처럼 펼쳐져 둘러져 있고 앞에는 개울이 흐르고 있다.

김룡사는 풍수지리상으로 암소가 누워있는 와우형국(臥牛形局)의 명당이다. 옛날에는 우물에서 쌀뜨물이나 소똥 같은 희뿌연 물이 솟았으나 일주만박 마을에서 결혼식에 사용할 물을 잡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물이 말라 버렸다고 한다. 명부전은 바로

소의 눈에 해당하는 곳이며 앞에는 구유(밥그릇)에 해당하는 언덕이 있다. 산모퉁이를 돌아보면 상과 삼층석탑이 서 있는데 불상은 목동을, 석탑은 고삿을 매어 두는 말뚝으로 본다는 것.



선가(禪家)에서 소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동물이다. 흔히 개울을 얻는 과정을 심우도(尋牛)의 대종법문을 펼치기도 했다. 특히 서암스님은 김룡사가 출가 본사이자 경흥강원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곳에서 용맹정진했다.

김룡사 주지 자광스님은 “성철스님은 이곳 극락전에 능엄경 사구계가 적힌 주련을 걸어놓고 가행정진하기도 했다”며 “능엄주를 유하게 하고 3천배 수행을 강조한 것도 이곳에서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봄부터 명부전 요사채에 머물고 있는 조계종 종회의원 정림스님은 “이곳에서는 잠이 깊어 들지 않는다”며 새벽 3시30분만 되면 정확하게 자절로 잠이 깬다고 한다.

김룡사는 신라 진평왕10년(588년) 운달조사가 창건한 고찰로 일제때만 해도 50여개의 말거느린 전국31교구 부산가운데 하나였다. 출창불사종인 김룡사 경흥강원은 3백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은둔방으로 유명하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apia.com)

## 부산 옹호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 50명 배출

옹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혜춘)은 19일 제3기 자원봉사과정 양성 교육 수료식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거행했다. 15일부터 3일간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54명은 이날 수료장을 받고 앞으로 가정봉사원으로 질높은 서비스를 펼치게 되었다.

천미희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센터

마스터/워치드 김희균 협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02)1396-2736 HP 016-228-2358

# 2000년 불교달력은 감로카렌다가 1등입니다

<p>동자승의 세계</p> <p>크기: 대·소</p>	<p>적멸보궁과 기도도량</p> <p>크기: 대·소</p>	<p>대 불(大佛)</p> <p>크기: 대·소</p>	<p>산사의 향기</p> <p>크기: 대·소</p>	<p>한국의 명찰</p> <p>크기: 대·소</p>	<p>한국의 석불</p> <p>크기: 대·소</p>	<p>살아있는 달마</p> <p>크기: 소</p>	<p>북한의 사찰</p> <p>크기: 소</p>
<p>불교전통문살의 미</p> <p>크기: 소</p>	<p>금강산의 사계</p> <p>크기: 소</p>	<p>나한도</p> <p>크기: 소</p>	<p>차량용 미니 달력</p> <p>크기: (11×18cm)</p>	<p>(사진:안장현) 대불, 산사의 향기, 한국의 석불, 적멸보궁과 기도도량, 한국의 명찰, 불교전통문살의 미는 한국불교사진 예술의 독보적인 안장현교수의 작품이다. 안교수는 월간 영상 편집장을 지낸바 있으며, 20여년간 수많은 불교문화유산을 사진에 담아왔다. 석불, 국립공원, 석굴암, 영경의 미소, 선의 세계 등의 사진작품들이 있으며, 현 한국 사진작가 협회회원 및 대한사진예술가협회 자원으로 있다.</p>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불교 위상을 높이는 말없는 포교사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사명으로 품위있고 격조 높은 달력을 만들어 수많은 사찰과 불자님들에게 기쁨을 드려왔던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4년 달력을 주문 받고 있습니다.

- 크기: 대(30×31cm) 국6절 소(26×26.5cm) 사육12절
- 매수: 표지포함 13매
- 특수고급 제본(TW스프링)
- 주문부수: 100부이상(차량용 미니 달력 200부이상)